

「...자르기를 반씩하면, 반 아닌 데가 없게 되어 더 쪼갤 수 없다.」(觀必半, 毋與非半, 不可羈也, 同經說)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墨子」, 중의 이 소篇은 墨家가 實用的인 技術의 단계로부터 科學의 내지 哲學의 단계로 발전하는 경향을 뚜렷이 示唆해 주고 있으며, 그리스인들이 멸시하였던 logistike(計算術)가 아니라, 유클리드 型의 幾何學體系, 즉 mathematike(幾何學·數論)쪽을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墨子」속의 幾何學의 章이 墨家의 〈經說〉을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심에 여지가 없으며, 다만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특이한 組織體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으며, 강력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B.C. 3世紀 이후에는 흔적을 남추고 말았을까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 볼 수 있다. 이를테면 墨家의 論證의 方法이 그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名家의 경우와 같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名家의 論證의인 태도에 대한 反感은「莊子」(天下篇), 「荀子」(非十二子篇)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傳統的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異端이었음을 충분히 示唆하고 있다. 또 중요한 이유로는 非屈折語(弧立語)로서의 中國語가 지닌 非論理的인 屬性 때문에, 論理的인 표현을 위한 노력이 좌절하고 만 점이다.

結局 中國數學의 방향은 초기의 幾何學의 思想이 言語의 장벽—크게는, 抽象的 演繹보다 具象的 知覺 쪽을 더 重視하는 傳統的인 思惟環境의 장벽—에 부딪쳐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자 代數學의 경향이 그것에 고유의 論證形態—〈機械的 代數學(2算本義)〉와 함께 主流를 이루게 된 것이다.

기묘한 것은, 墨家의 「幾何學」에는 목수의 자(矩)와 콤파스(規)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直角三角形의 성질에 관해서 전혀 말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圖形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幾何學의인 構圖를 전혀 신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安陽에서 발견된 B.C. 12世紀 내지 13世紀의 유물 중에는 복잡한 幾何學의 무늬로 된 精巧한 장식이 있으며, 그밖에 建造物·室內장식 등에서 幾何學의인 考案을 수많이 볼 수 있다. 이 일찍이 모순되는 태도는 圖形을 장식 내지 象徵 정도의 二次的인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中國人의 기본적인 思考패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圖形은 비록 感覺的 形象에 의하여 나타내어진

다 하여도 결코 經驗的 內容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概念內容의 표시라는 그리스의인 本體論의 思想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eidos(形相)를 문제로 삼은 그리스인이 形而上的인 命題를 오히려 文章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 中國人이 즐겨 圖象의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결코 모순된 것은 아니다.

요컨대 墨子의 幾何學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던 이유—또는 바꾸어 말해서 代數學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그러한 발상이 처음부터 싹트기 어려웠다고보다 그것을 저지하는 환경적인 여건이 이미 戰國時代에 굳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傳統醫學의 現代化를 위한 試論

慶熙大醫大 東西醫學研究所 鄭在赫

韓國醫學의 醫哲學의 主体性的 探求問題는 現下 우리의 政治·經濟·文化·社會等 諸分野에서 進行하고 있는 主体性 確立문제와 關聯하여 고려될 수 없는 當面課題로 되고 있다. 그러나 韓國醫學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現代醫學은 아직 醫哲學的 土着化의 未熟性을免치 못하고 있다. 이에 總和的 韓國醫學을 위한 主体的 醫哲學精神의 摸索과 그 理論定立을 위한 試論을提起한다. 이러한 主体性 探求의 主題를 우리 國家理念의 象徵인 太極旗에서 由來한 太極論에 두고 이에 대한 理論의 背景과 內容에 대한 醫哲學的 分析으로부터 始作한다.

太極論과 醫哲學의 주체성과의 關係를 살펴 보면, 太極論은 易經에 起源하며 陰陽二元的 昇華 또한 超越에 의한 一元論이나 그 思想의 本質은 陰陽論이다. 陰陽論의 醫哲學的 起源은 東洋醫學의 原典인 內經의 陰陽五行論이다. 따라서 太極論에 대한 醫哲學的 分析은 傳統醫學體系였던 東洋醫學思想의 本質과 아울러 그 體系에 心身을 위탁하고 있는 환자층에 대한 意識構造를 力動的으로 理解하고 파악할 수 있는 方法이 될 것이며, 이로써 韓國醫學을 보다 高次元的으로 向上시켜 民衆 속에 土着化를 強化하며, 또한 古典的 醫哲學思想을 合理的 理論體系로 轉換시키는 方法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太極論의 研究는 必然的으로 陰陽五行論의 分析에 歸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陰陽五行論을 陰陽論과 五行論으로 分離하고 이들 兩論間에 存在하는 相異點·類似點 및 共同點에 대한 比較연구를 醫哲學的 分析을 통하여 試圖한다.

陰陽論은 東洋의 二元論이며 起源이 易經(周易)에서 始作된다. 易經은 東洋의 儒敎經典인 四書(論語·孟子·大學·中庸), 五經(試經·書經·易經·禮記·春秋)中 五經의 하나이며, 易經은 東洋의 哲學·倫理는 勿論, 天文·地理·韻學·象數·樂律·兵法·醫學 等 文化 全般에 걸쳐 모두 이에 理論의 母體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人類의 偉大한 精神의 產物로서 一敎外에 또 하나를 列擧할 때는 서슴없이 易經을 들 수 있겠다. 現代靑年들은 이와 같이 廣闊한 知的인 體系가 東洋에서 만들어졌다는 事實을 莫大하고 있으며 그것은 점쟁이들이나 다루는 迷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버리려고 하나 이런 思考方式은 主體의 文化面에 對한 無知의 所産이다. 實로 易經의 思想은 東洋哲學의 根幹이고 儒敎思想의 基礎이며, 따라서 易經을 모르고서는 東洋思想을 論할 資格이 없다고까지 단정할 수 있다. 또한 이 易經이 後世 思想界에 끼친 影響은 至大하다고 하겠다.

思想의 內容으로 보아 易은 세가지 뜻으로 要約할 수 있다. 卽 簡易, 變易 및 不易이다. 簡易란 簡單하고 쉽다는 뜻으로 陰陽의 調和의 發展過程에 따른 人生과 宇宙自然秩序에 對한 樂觀의 觀照이고, 變易이란 陰陽二元의 相互關係에 의한 流轉의 變化法則을 力動的 辯證論으로 說明한 것이며 不易이란 이러한 變化中에 內包된 不動의 眞理를 말한 것이다.

易經을 構成面에서 分析하면 繫辭上에『易의 이치는 太極이 있고 太極이 天地의 陰陽을 낳고 陰陽에서 老陽·老陰·小陽·小陰의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을 낳고 八卦는 吉凶을 定한다. ……』(是故易有大極是生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라 하여 陰陽이 太極에서 發生하여 四象 八卦…… 六十四卦까지 多元의으로 發展分化하나 終局에는 最終卦인「未濟」에서 未完成的 形態로 原點으로 다시 還元되는 循環의 構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易思想은 이러한 순환적 變化와 天과 地, 낮과 밤, 여름과 겨울 等의 自然의인 二元의 循環性의 變化 外에 哲學的 및 宗教的 二元分化性인 善과 惡, 精神과 肉體, 精神과 物質 等의 調和作用에 依하여 創造的 發展을 形成하는 데 그 核心이 있는 것이다. 陰陽論을 內經醫學의으로 살펴 보면, 陰陽論과 五行論은 內經에 相互結合된 陰陽五行論으로서 人體醫學과 宇宙自然現象을 說明한다. 內經의 難解性 또한 顯著하며, 原典의 原形에 對하여도 問題되고 있으며 內容의 構成은 素間, 靈樞, 太素, 明堂 等이 있다 하나 現在 一般의으로 傳해지고 있는 것은 素間

과 靈樞뿐이다.

內經 素問 陰陽應象大論篇 第五에는『陰陽이란 天地의 道이며, 萬物의 根本이며, 變化의 母體이며, 生殺의 本始이며, 神明의 府이다』(陰陽者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神明之府也)라고 하여 內經醫學의 陰陽論을 定義하여 陰陽이 곧 天地의「道」로서 東洋哲學의 眞髓임을 表示했다. 이를 現代의 解析으로 풀이해 보면 陰이니 陽이니 하는 것은 相對的인 것이며 絶對 陽도 없고 絶對 陰도 없으며 甲이 乙에 對해서 陰이나 丙에 對해서는 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陰陽과 陽性의 所持量의 差異에 의해서 萬象의 差別相을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의 性質을 비교하여 相對的으로 陰陽이 區分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原理로써 無限히 陰陽이 細分될 때 그 수는 無數히 展開될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의 相對性을 모르고는 陰陽의 本質을 理解할 수 없으며, 陽中에도 다시 陰과 陽의 區別이 있고 陰中에도 또한 陰과 陽의 區別이 있으므로 陰陽論의 二元의 多元論의 側面을 볼 수 있는 것이다.

生命現象中에서의 陰陽의 變化에는 無形의 變化와 有形의 變化가 있으니 有形의 陰陽은 相互 對立하여 盛衰消長이 相反하나 無形의 陰陽인 元陰과 元陽은 오직 生命을 위하여 서로 妥協하고 調和한다.

이렇게 살펴 볼 때 陰陽論에 對한 易學의 및 內經醫學의 分析으로 그것이 二元의 力動辯證論이고 아울러 循環論이며 나아가서는 調和的 創造性과 昇華로써 太極論에 歸納됨을 알 수 있다.

五行論을 現代의 合理的 觀點에서 보면 문제점이 多少 없지 않다. 그 中에서 하나를 列擧하면 自然과 人間의 모든 變化現象에 대하여 始終一貫 觀念의 五行論에 符合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合理的으로 五行論을 分析, 理解하려면 五行이란 陰陽의 二元配合에서 그 量의 差異에 의해서 五行의 各要素가 化生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陰陽論과 五行論은 共히 二元論의 共通性을 지니게 된다.

陰陽論이 二元의 相對로 된 宇宙人生觀인 데 反하여 五行論은 五行의 連鎖關係와 循環의 相對關係로 된 宇宙人生觀으로서 五行의 순환關係가 相生相克의 二元의關係에 基礎하여 成立되었으므로 表面上 模糊한 五行의 多元論으로 看做되기 쉬우나 實은 陰陽二元論의 理論展開上의 方法의 差異일 뿐 同一한 陰陽二元論을 歸納的으로 証明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行論은 陰陽二元의 多元論이며 循環論이다.